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0호 [루계 제25483호] 주체105(2016)년 12월 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대회참가자들은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농촌문제해결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주체적인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협동벌을 찾고찾으시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창건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19일 탄자니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 프란씨스 에프.리모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서거 5돐 회고위원회가 11월 20일 핀란드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들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레비 와흐르만과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뻬까 꼬뜨까싸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결성식이 몰도바청년주체사상연구선군동맹과 몰도바 쁘리드네스뜨로비에 주체사상연구 선군혁명반제협회의 공동주최로 11월 23일 찌라스뽈시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몰도바 쁘리드네스뜨로비에 주체사상연구 선군혁명반제협회 위원장 알렉세이 볼리네쯔가 선출되였다. 발언자들은 회고위원회결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 나라 각지에서는 전기증산과 함께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공장과 건설장,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전기절약열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전기는 생산과 건설의 동력이며 문명한 생활의 원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이 전기가 모자라 동음을 멈추고 우리의 거리와 마을들이 어둠속에 잠기기를 바라고있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제재봉쇄책동의 마수는 무엇보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전력공업부문에 뻗치고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나라도, 우리에게 그 무엇을 거저 주겠다는 나라도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전기문제를 풀어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압박과 훼방에 미쳐날뛰는 적대세력들에게 통장훈을 불러대야 한다. 그러자면 전력증산과 함께 전기절약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전력문제해결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으로 틀어쥐고 짧은 기간에 전력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긴장한 전기문제해결에서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있는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기절약투쟁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기절약이자 전기생산이고 전기증산이다. 전기를 쓰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전기를 극력 절약하여도 전국적으로는 몇개의 대규모발전소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거저 얻는것과 같은 전력예비가 나오게 된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어도 전기절약에는 계절이나 시기가 따로 없으며 이 사업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높아질수록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전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기절약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기절약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전기절약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올해에 평양시와 지방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지난 시기에 비해 전기덕을 톡톡히 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그 요인은 중요하게 전력생산부문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증산투쟁에도 있지만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진것과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기절약이자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인 동시에 자기자신의 행복과 문명한 생활을 지키고 더욱 꽃피우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가 늘 쓰는 전기에는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응축되어있으며 수천척 지하막장과 발전소들에서 사회주의불빛을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석탄, 전력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피땀이 슴배여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대해 깊이 되새겨보고 한W의 전기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고 값비싼 나라의 재부로 간주하여야 하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는것으로써 공민적량심을 지켜야 한다.

국가경제기관들에서 전력소비에 대한 계획화사업을 잘하고 그 집행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각 성들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전국적인 전력생산과 수요를 잘 타산하여 전력소비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특히 화학공업성, 금속공업성을 비롯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성, 관리국들에서는 자기 부문에서 전력소비한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목표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세우고 기어이 달성하여야 한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대책과 조건을 지어주고 선진기술과 경험을 잘 알려주어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절약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를 최대한으로 절약할수 있는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밀어주며 연구성과를 지체없이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끝내고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력예비의 큰 몫은 생산단위에서 나와야 한다. 생산단위에서 전력을 효과적으로 쓰며 절약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교차생산조직에 있다. 송배전부문과 성, 관리국들에서는 지역별로, 공장, 기업소별로 교차생산조직을 더 잘 맞물려 집행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직장, 작업반, 생산공정과 개별적기대별로 교차생산조직을 잘하며 교차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문들과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에서 한W의 전기라도 더 절약하여 인민생활향상에 돌리겠다는 자각을 안고 전기를 랑비하는 불합리한 생산공정들을 전기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공정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제품당 전력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 건설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건물을 하나 일떠세우고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도 실리주의원칙에서 전기절약형으로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과학기술전당을 에네르기절약형건축, 록색건축의 상징이 되게 일떠세운 건설자들과 평양자라공장의 현대화공사를 전기와 석탄을 적게 쓰면서도 필요한 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진행한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심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만들거나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여 자체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기절약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기수,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전력예비를 찾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전기절약, 에네르기절약기술분야에서도 세계의 패권을 쥐겠다는 대담한 목표와 배짱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전기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전기덕을 보지 않는 사람도 없다. 온 나라 남녀로소모두가 전기절약투쟁에 빠짐없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전기를 쓰는 곳에는 반드시 절약예비가 있기마련이다. 현재 기관, 기업소들에서 필요이상의 용량을 가진 전기설비들을 자기 용량의것으로 바꾸며 모든 건물들의 조명등을 메드등으로 교체하고 복도에 점멸기를 설치하기만 하여도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전기절약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자면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 발동되여 대중속에 당의 의도를 심어주는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꾸준히 진행하고 수백만 당원들이 선봉에 설 때 전기절약투쟁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모두다 오늘날 애국심은 전기절약에서부터 표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전기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원천, 사회주의조선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총궐기해나선 김철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전투를 벌려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선철생산계획은 지난 11월 18일까지,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2월초까지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김철의 로동계급은 드높은 철강재생산성과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현장들에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는 구호들과 속보판들을 게시하고 출근길환영과 방송선전차활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비롯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이와 함께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여 직장, 작업반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리기지들을 전투현장에 접근시키고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계통의 현대화를 다그쳐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김철로동계급의 충실성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불타는 열의안고 철강재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용광로직장의 용해공들은 철강재생산의 중요공정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3호용광로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선철생산기일을 앞당기는 근본열쇠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용해공들은 온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앞선 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많은 량의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로를 정상가동시켜 전투기간 생산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열간압연직장에서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부족되는 부속품과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완성압연기와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압연강재생산기일을 훨씬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결1, 2직장에서는 5일간은 실히 걸려야 할 대형설비보수를 단 3일동안에 해제끼고 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전지게 하여 혼합기와 콘베아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강철2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소전로의 랭각계통에 대한 보수가 제기되자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로를 정상가동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려 강철생산계획을 50여일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보장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정광공급1, 2직장에서는 설비보수정비를 잘하고 탈수장주변 수로파기를 비롯한 겨울철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정광공급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산소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산소분리기의 정상가동에 강철생산이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며칠은 걸려야 할 압축기수리를 단 4시간만에 해냄으로써 산소를 원만히 생산공급하였다.

전기자동화직장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여러 직장들의 현대화, CNC화된 생산설비들과 생산공정들이 정상가동할수 있게 하였다. 직장에서는 자동화1, 2직장과 제철공무부문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전동기개조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설비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과학기술로 철강재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의지를 안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아연합금용해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량의 희유금속을 절약하면서도 각종 아연합금메탈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소결과 정광계통콘베아들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열간압연계통의 베아링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이 내놓은 많은 연구성과들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은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서 큰 은을 내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면서 철강재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함흥철도국에서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화물수송계획을 11월 30일까지 101.5%로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9월 25일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00.6%로 끝낸 국의 수송전사들은 성적인 북부전선 철도수송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세로 매일 평균 2 500t의 물동을 계획보다 더 수송하여 화물수송량을 지난해의 1.3배이상으로 장성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률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강현봉, 함명국동무를 비롯한 국책임일군들은 만리마시대의 기수답게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키였다.

국에서는 단계별전투목표와 임무를 명백히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투현장들에 일군들을 파견하고 빈틈없는 지휘와 작전으로 함북도 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매일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화물수송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분국, 역, 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물동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갔다.

한영철, 함명준, 김영봉동무를 비롯한 수송지휘일군들은 국관내를 달리는 기관차, 화차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역들과의 사전련계밑에 화차머무름시간을 단축하고 차무이, 차몰이를 비롯한 렬차편성을 합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송의 신속성, 원활성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하루 최고 1만수천t에 달하는 물동을 수송하는 실적을 올리였다.

국에서는 200일전투기간 많은 량의 물동수송과 함께 수백대에 달하는 기관차들과 수천량에 달하는 화차들에 대한 중, 소수리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중요역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내밀었다.

기관차, 객화차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의 속도를 창조할 일념안고 맡겨진 과제를 매일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단천철도분국, 고원철도분국의 기관차, 객화차부문 로동계급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북부전선으로 향한 기관차, 화차들에 대한 검사, 수리를 제정된 시간보다 훨씬 단축하여 끝냈으며 함흥객화차대, 고원객화차대에서는 역들에 이동수리소를 전개하여 운행중에 있는 렬차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철길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200일전투기간 흥남항역과 원산항역의 철길을 일신하여 지난 시기보다 10배이상 되는 물동을 수송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들은 전투목표를 완수한 기세드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전혜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국산화된 성능높은 연유첨가제 개발

리과대학에서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 자랑할만한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100% 국산화된 성능높은 연유첨가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한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연유첨가제는 21세기 록색화학원료로 주목되고있을뿐아니라 무독성화학물질로 인정되고있는 디메틸카르보나트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널리 리용되고있는 유기액체형 연유첨가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국제시장들에서 경쟁력을 가지고있는 첨단지적제품인 성능높은 연유첨가제를 100%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국산화한 이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휘몰아치고있는 국산화열풍이 안아온 또 하나의 귀중한 열매이다.

원유자원의 고갈과 연유에 대한 늘어나는 시장수요,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유의 소비량을 줄이고 기관에서 일어나는 노킹과 같은 폭발적인 이상연소현상을 없애며 연소를 돕고 기관청정작용을 하는 등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연유첨가제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리용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리과대학 화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성능높은 연유첨가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부학부장 홍영범동무를 비롯한 화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한재호동무를 비롯한 해당 단위 일군들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리용되고있는 여러가지 연유첨가제들의 구조와 작용특성, 원료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박사 윤경섭, 심의찬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나라의 여러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들을 출발원료로 하는 성능높은 연유첨가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이 과정에 제조원가가 매우 적을뿐아니라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유기액체형연유첨가제인 디메틸카르보나트를 상압조건에서 높은 수률로 합성할수 있는 새로운 합성방법을 연구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이 새로운 연유첨가제의 작용특성과 적용범위 및 도입가능성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김세혁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 연유첨가제에 대한 현지도입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인 연유를 한방울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려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조선국제철도려객합작회사와 신의주철도분국 신의주기관차대를 비롯한 철도운수부문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자재상사 등 여러 단위의 책임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들의 연구도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나섰다.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해당 도입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성심성의의 방조에 의하여 새로 개발된 연유첨가제를 기관차나 화물자동차 그리고 발동발전기에 쓰이는 연유에 0.05~0.1%정도 첨가하여 리용하면 휘발유는 5.9%이상, 디젤유는 7.1%이상 절약할수 있다는 경제적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증되였다. 도입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연유첨가제는 사용과정에 기관이 부식되는 현상이나 노킹을 방지하고 청정작용을 하여 기관수명을 늘일뿐아니라 배기가스속의 유해가스량도 훨씬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좋다고 한다.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창조물인 이 새로운 연유첨가제의 제조방법은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

현재 리과대학에서는 100% 국산화된 연유첨가제를 여러 단위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명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에 특기할 위대한 령도

인류력사에서 5년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수수천년맞잡이의 비상한 력사로 빛나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 일심단결의 대화원, 주체의 핵강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나라의 북부에서 높이 울려퍼진 전화위복의 대승전포성…

이 모든 승리와 미증유의 기적들에 비껴있는 위대한 모습이 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심장속에 모시고 사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조선로동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우리는 긍지높이 선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하늘땅도 보이지 않던 5년전 12월, 피눈물의 그 언덕에서 우리 인민을 사랑의 손길로, 거인의 손길로 한품에 안아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억세게 틀어앉은 신념이 있었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자. 당조직들을 발동시켜 우리 당의 변함없는 사랑의 힘, 일심단결의 불패의 힘으로 슬픔에 잠긴 인민을 일으켜세우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이 땅우에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자.

피눈물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조직들에 주신 첫 지시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편의를 철저히,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모든 행사를 조직하라. …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전당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슬픔에 잠긴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였다. 조의식장 곳곳에 전개된 더운물매대와 의료초소, 은정어린 밥열불임띠가 인민의 마음속에 따스한 정을 부어주었다.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인민의 마음은 따뜻했으며 비관을 몰랐다.

12월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원수님과 맺은 인민의 혈연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으며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피눈물의 12월 마감날 자신께서는 장군님의 령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것을 맹세하였다고,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충정과 의리, 가장 비범한 령도와 초인간적인 정열, 가장 위대한 사랑과 불같은 헌신으로 그날의 맹세를 실천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어떤 비상한 의지가 맥박치는지 원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일군들조차 다는 알지 못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있던 주체101(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장내에는 격정과 환희가 굽이쳤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당의 강화발전의 불변의 진로가 제시되는 력사적인 시각이였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우리 당건설과 강화발전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이날에 하신 력사적인 담화가 바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새겨진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이다.

확고한 계승성과 시대성,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된 강령적로작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당의 지도사상과 위대한 투쟁강령을 새롭게 정식화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여기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된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9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와 력사적인 주체102(201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 올해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를 계기로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이 더욱 굳건히 고수되였다.

전당과 혁명대오안에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맥을 잇고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대표자회이후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회로 몸소 발기하시고 세심히 지도해주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세포사업의 고귀한 지침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은 전당을 격동시켰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뒤이어 각 도들에서 진행된 당세포비서대회는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기층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사상이라고 하시며 당사상전선에 불을 지펴 전당강화의 큰걸음을 내짚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명시한 전략적대강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대회이후 모란봉악단의 노래폭탄으로 사상공세의 첫 포성을 울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선전일군들모두가 오늘의 항일유격대나팔수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앞장에 서도록 실천적모범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온 나라에 세차게 불어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열풍,

봄날에도 여름날에도 겨울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백두산에로의 행군길,

충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장들을 들끓게 한 화선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강력한 선전선동공세로 천만군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기적의 창조자로 키움으로써 당과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대의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일심단결의 력사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하자. 이것은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굳어진 철의 맹세였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그런 훌륭한 화폭을 펼쳐놓자는것이 나의 의도이다. …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풀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는 쟁쟁히 울려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결론과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민이라는 부름이 꽉 차있는, 구절구절 인민에 대한 혈연의 정이 차넘치는 연설은 삽시에 온 나라의 민심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실 우리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의 세계가 천만군민의 폐부에 흘러들었다.

그이의 열정은 연단에서 끝나지 않았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는 그이의 크나큰 지성에는 끝이 없었다.

력사적인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받아안은 격정과 불같은 맹세를 담아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평양우편국 운수직장 운수작업반 당세포위원장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한자한자 적어보내주신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 절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던 자식을 품어안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주신 그 사랑이 하도 고마와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삼가 올린 편지에 남겨주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친필,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응당할 일을 한 동해기슭 포구마을의 한 녀성당일군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써보내주신 은정어린 친필…

씻을수 없는 과오를 범하여 엄한 처리를 기다리던 어느 한 군의 일군들, 복잡한 가정주위환경으로 고민하던 철도성청년돌격대려단의 한 일군이며 함주군 동서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의 평범한 뜨락또르운전수를 비롯하여 사랑과 믿음의 그 손길에 이끌려 이 땅에 두번다시 태어난 사람들 천으로 헤아리랴, 만으로 헤아리랴.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밑에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시여 멸사복무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당풍으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정력적인 령도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이 땅에 펼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과 정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속속들이 흘러들어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 마을들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심장으로 매혹된 천만군민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원수님과 발을 맞추고 어깨를 겯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을 힘차게 걸어왔다. 차디찬 바다물에 뛰여들어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서던 섬초소의 군인들,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우리 식의 최첨단제품들을 펑펑 만들어낸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북방의 혹한속에서도 청년강국의 기발을 높이 휘날린 백두청춘들의 위훈은 당의 붉은 기폭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동방의 핵강국의 우렁찬 뇌성은 제국주의야성에 파멸의 돌파구를 내는 위력한 무기로 원수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은 하늘에 닿았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에 대한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대행운,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소하시였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뜨거운 정과 열로 천만군민을 굳게 묶어세우시는 단결의 지장,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이것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며 자기의 붉은 기록에 승리를 더 크게, 더 진하게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5년사가 력사에 메아리치는 진리이며 과학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영원한 승리의 보검-주체의 사상론

가슴벅찬 승리의 5년이다.

얼마나 거창한 창조와 비상한 전변의 새 기록들로 날과 달이 엮어졌던가.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백승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이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된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전례없는 비약을 일으키시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걸출한 위인상이 우렷이 안겨오고 또 한분의 희세의 정치가를 우리 당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뿌듯이 차오른다.

일찌기 선군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사업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사상전의 된바람이 일어번지도록 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해오는 나날 우리 천만군민이 새겨안은 것은 주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뭉친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헤치시며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장에 울려퍼진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우리는 절감하였다.

사나운 눈보라를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심원한 뜻이 우리의 가슴을 쾅쾅 두드린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사상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면 이 세상 무서울것이 없다고, 적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거기에 심혈을 바치고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일지를 번지느라면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뜻깊은 날 총대에 사상을 재우면 그 총대는 절대로 녹이 쓸지 않는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사실도 있고 비행사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시며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며 사상만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이야기도 있다.

진정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고 하시며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5대교양의 거세찬 열풍이 일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날수 있었다.

올해에도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 명실공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온 나라 도처에서 영웅적위훈이 창조되고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자라날수 있게 한 원천이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북부전선에서 울려퍼진 승리의 포성, 그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대건설작전으로 두달 남짓한 기간에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과 100여동의 공공건물을 훌륭히 일떠세웠다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조국의 북변에 천만년 흘러도 변함이 없을 일심단결의 성새, 사회주의의 억센 보루를 더 높이 쌓아올리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는데 세계가 경탄하는 북부기적의 참의미가 있다.

정녕 승리의 5년을 크나큰 긍지와 격정에 넘쳐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상론을 제일보검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아갈 때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과 의지가 백배해진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백방으로 강화된 조직적전일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김정은동지가 당의 지도적지위에 높이 추대된것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적수완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지난 5년간 우리 당은 조직적전일체로 백방으로 강화되였다.

당의 조직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때로는 몸소 소집하신 대회에서, 때로는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얼마나 고귀한 지침들을 마련해주시고 획기적인 대책들을 취해주시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당조직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치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것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심, 그이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늘땅 끝까지 받들어모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온 누리에 떨쳐졌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강도높게 벌어지는 속에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직진행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칼날같은 기강이 확립되였다.

당의 령도에 도전하여나선 현대판종파일당이 단호히 적발숙청됨으로써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명맥이 확고히 고수되고 당의 통일단결은 더욱 굳건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속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또 얼마나 높아졌던가.

인민군대를 선두로 하여 수산부문에서 유훈관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속에 수산부문 당조직들만이 아니라 도, 시, 군당위원회들을 비롯한 모든 당조직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유훈관철에서 놓친것은 없는가, 집행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집행한것은 없는가를 따져보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기풍이 어디에나 차넘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야말로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라는 관점과 립장에서 당의 방침을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다.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던 사람들까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탓하지 않고 품어주는 당중앙과 한피줄을 잇고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쳤다.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게 되였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게 공고한 결합을 이루고 령도자의 부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에 의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무수히 일떠섰으며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도 전례없는 대기적, 대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자연의 엄혹한 대재앙이 휩쓸었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 이룩된 전화위복의 대승리도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맥동치며 당의 결심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고야마는 각급 당조직들의 비상한 전투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백방으로 강화된 조직적전일체-조선로동당의 위용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숭고한 충정의 결정체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거연히 솟아 빛나는 당창건기념탑 본사기자 김충훈 찍음

어머니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부름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

어머니!

정녕 이것은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우리 당을 우러러 터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고백이며 영원히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만을 가고갈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5년전 12월, 피눈물의 바다에서 울려퍼진 어머니의 뜨거운 목소리가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목소리는 천하를 울렸다.

피눈물의 조의식장에서 받아안은 봉물과 더운물, 털모자와 장갑…

그처럼 따뜻하고 웅심깊은 그이의 손길에서 어버이장군님 부어주시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느꼈고 그렇듯 인자하신분을 령도자로 모신 행운을 지닌 격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던 우리 인민이였다.

이런 열렬한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끊임없이 흘러든 지난 5년세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확고부동한 신조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자신의 심장의 박동소리로 간주하시고 한몸을 불태워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길에는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삼복철의 한낮도 있었고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눈바람세찬 한겨울의 깊은 밤도 있었다. 사생결단의 최전연바다길도 있었고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도 있었다.

말그대로 지난 5년간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날과 날들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진정 그것은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자애에 넘친 어머니의 모습이였고 이 나라 천만자식을 따뜻이 품어안아 지켜주시는 굳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그대로 비낀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쳤다.

전당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기풍이 당풍으로 확립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현실로 펼쳐졌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더불어 이 땅우에는 최우선, 절대시, 발이 닳도록, 멸사복무,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어들이 수없이 태어났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공장들과 멋쟁이거리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이채어경》을 안아온 황금해의 력사와 재난을 당한 북부지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어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하기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은 지난 5년세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운명의 품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중앙뜨락에서 살았다.

그렇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더불어 승리와 영광, 기쁨과 행복만을 체험한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정대로 쪼아박듯이 새긴 하나의 진리가 있다.

어머니없인 나는 못살아,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

본사기자 윤 명 철

조선중앙통신사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기자, 편집원,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창립 7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조선통신사대표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눈부신 혁명속도로 주체조선의 절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맞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조선중앙통신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어나고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당과 국가의 유일한 공식대변자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위력한 보도기관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찌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주체적통신건설을 구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주체35(1946)년 12월 5일 조선중앙통신사를 창립해주시고 새 조선의 통신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통신사가 당과 정부의 대변기관, 방조기관, 보도선전활동의 중심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중앙통신사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보도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통신사일군들에게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중앙통신이 수령의 통신, 당의 통신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과 대적언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걸음걸음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창립후 지난 70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충정으로 빛나는 연혁을 새겨오면서 당의 주체적통신보도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축하문은 중앙통신사의 기자, 번역원들과 일군들이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활동소식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과 정치행사들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중앙통신사의 기자들은 우리 당의 미더운 종군나팔수답게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과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들이 창조되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과 조국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면서 전투적인 취재집필활동으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중앙통신사의 기자, 번역원들과 일군들이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대적언론전을 강도높이 벌려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유리한 국제적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세계언론계에서 영향력있는 통신사들과의 교류를 주동적으로 활발히 벌리고 인터네트를 통한 대외선전을 강화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일편단심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당에서 맡겨준 통신보도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당의 령도를 충실히 보좌하는 이목구비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축하문은 조선중앙통신사의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우리 당의 붓대중시, 언론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중앙통신사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첫걸음을 뗀 중앙통신이 장장 70년간 명실공히 수령의 통신, 당의 통신으로서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쳐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위력한 언론기관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통신사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무어주시였으며 통신사조직에 관한 결정서와 규정도 친히 완성하여주시고 몸소 조선중앙통신사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앙통신사를 당과 정부의 립장을 공식대변하는 새 조선의 중추적언론기관으로, 국제적인 통신사로 튼튼히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신보도활동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로부터 통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수십차례나 중앙통신사를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통신보도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성장하여온 중앙통신사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통신이 노는 역할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중앙통신사의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통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여러차례나 령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3(1964)년 6월 12일 중앙통신사를 또다시 찾으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것을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로 제시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혁명의 년대기마다 통신보도일군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중앙통신사의 모든 활동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결의를 반영한 5국 2세포 당원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불멸의 회답서한을 보내시여 전당의 본보기세포로 내세워주심으로써 우리 당력사에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의 발단을 열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를 앞세우시고 통신보도일군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값높이 불러주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중앙통신사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통신보도일군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선전과 유훈관철에로 지향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몸소 편집자가 되시여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을 지도해주시고 통신보도사업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일깨워주시였으며 5국 2세포의 당세포위원장이 삼가 올린 소박한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써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중앙통신이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신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중앙통신사 일군들과 전체 종업원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같이하는 영원한 혁명동지, 선군혁명의 나팔수가 되어 적극적인 통신보도활동으로 주체조선의 힘찬 목소리를 신속정확히 내보내며 우리의 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중앙통신사의 70년력사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의 력사이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운명의 뿌리를 잇고 사는 전위투사들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충만된 충정의 대오로 강화발전된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력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통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발전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중앙통신의 혁명적전환을 안아오시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통신보도부문에 주신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앙통신을 영원히 수령의 통신, 당의 통신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과 국가의 통신보도초소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과 비상한 열의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통신보도사업을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주체의 필봉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천만군민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고 세계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보도전을 전개하여 주체혁명의 나팔수,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의 조선중앙통신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력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1950년대 종군기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빛내이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전에서 진군의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관람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전당, 전군, 전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에 수록된 력사적화폭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이 땅우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과 승리만이 아로새겨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며 쌀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현대적인 편의봉사시설이 일떠섰다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 봉의원이 새로 건설되여 문을 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수백㎡의 면적에 2층으로 건설된 봉의원에는 리발실과 목욕실, 한증칸, 전자오락실, 탁구장, 식당 등 다양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된 봉의원의 2층에는 탁구장과 전자오락실, 청량음료매대도 있어 농업근로자들이 리발과 목욕을 하고는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봉의원은 황주군과 황해남도 그리고 사리원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오고가는 많은 손님들도 즐겨 리용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김동호, 김만복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도시부럽지 않은 현대적인 봉의원을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였다.

보수분조의 분조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 손으로 고향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간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일군들은 주변에 흔한 돌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벽체를 쌓기로 하였다. 흔한 지방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니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얼마전 문을 연 봉의원에 찾아온 농장원들과 손님들은 도시의 은덕원을 통채로 옮겨온것 같다고 하면서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농장마을을 보다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12월5일청년광산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12월5일청년광산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관계부문, 광산 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12월5일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능오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기적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창립 30돐을 맞는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일떠세워주신 12월5일청년광산은 조국의 귀중한 재보이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5(1986)년 12월 5일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고 무려 수백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광산개발을 전망성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광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속속들이 풀어주시고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2월5일청년광산은 지난 3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눈부신 발전과 비약을 이룩하며 충정과 위훈의 력사를 새겨왔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광산에서는 로동계급의 열화같은 충정을 담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혁명사적교양실을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영생탑을 건립하고 기업소구내를 위력한 교양거점으로 전변시키였다.

광산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개 대상의 기본건설을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력사적인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충정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높이 세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앞당겨 완수하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받들어 광물증산의 승전포성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한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김창하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최학철, 갱장 김영세, 굴진공 최현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북변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2)

시초

승리한 북부전선에 축복의 흰눈이 내린다

당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박현철

그 품을 떠나서도 살 곳이 있고
그 손길과 떨어져도 숨쉴 곳이 있다면
우리 진정
이 노래를 부를수 없으리라, 당이여

한밤중 덮쳐든 대홍수
모든것이 단절된 북변의 심심산중에서
무심한 하늘을 저주하며 흐느껴울 때
상상이나 했던가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때문에
준엄한 진격이 이 땅에 선포될줄…

늘 한집안에 살아도
자식이 옹심깊은 어머니마음 다 모르듯
당이여 그대 사랑 젖줄기처럼 빨며 자랐어도
미처 다는 몰랐던 그 진정
어려운 날에 더 사무치게 절감했노라
그대 마음속에 인민이 전부인줄

사랑에 불타는 그대 목소리 울려
재난의 파편들만 나딩굴던 허허산야에
대격전의 장엄한 포성은 울리고
그대 따뜻한 정의 손길이 닿아
아프고 쓰린 가슴들에
기쁨과 희망의 꽃은 피여났거니

어이 잊으랴
꿈같은 소식에 꼬박 밤을 새운 이들
사랑의 야영소로 떠나던 해솟는 그 아침을
온 마을 온 도시가 한날한시에
사랑의 담요를 한아름 받아안고
쓸고 또 쓸어보며 잠 못 들던 그 밤을

당이여, 그대가 이 땅에 펼치였어라
잃은것보다 더 많은것을 받아안는
꿈같은 날과 날들
제 집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제 집을 잃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 행성에 다시없는 인민사랑의 별천지를

부모와 자식이 살붙이라면
당과 인민은 무엇이여서
불행의 나락에서 만복의 절정에로
이렇듯 이 몸을 높이 떠올리는가
나의 작은 상처도
그대의 큰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아, 당과 인민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유기체

우리 만일 다른 땅에 태여났다면
평범한 백성이라는 그때문에
재난의 물결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리
허나 이 땅에서는 인민이라는 그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이렇듯 하늘처럼 받들렸나니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세상에 없는 인민사수전으로 보여준
조선로동당이여
이 땅의 인민이라는 그것이
세계가 진정 부러워하는
우리만이 누리는
다시없을 천만복

억만금을 쌓아놓은 곳이라 해도
이 땅이 아닌 곳은 나는 싫어
번쩍이는 삶을 약속한다 해도
그대 품이 아닌 곳은
죽어도 우린 싫어

생사의 기로에서 행운의 절정에 올라선
가식없는 천만심장의 고백이어라
세상에 두번다시 열번다시 태여날수 있다 해도
오로지 그 품에만 삶의 태를 묻고
또다시 그대의 아들딸로 살고싶어라
아,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눈물의 바다

정무국

태여나 이제껏 보지 못한 바다였다
거대한 제방을 넘어
천리산야와 집들을 사정없이 휩쓸며
순식간에 모든것을 페허로 만든
검푸른 큰물의 바다

불행의 그 홍수를 밀어내며
이 나라 북변으로 도도히 파도쳐온
거창한 또 하나의 바다
천리 먼 북변땅이 지척이련듯
땅길과 하늘길 바다길을 꽉 메우며
끊임없이 달려오던 후더운 정의 물결
장엄히 흐르던 붉은기의 행렬…

정녕 태여나 처음 보는 바다였다
그로부터 단 두달만에
재앙의 잔해가 행복의 파도로 뒤바뀌여
전화위복의 전설을 노래하는
새 집의 바다 선경의 바다
그우에 또한 하염없이 흘러흐르는
가없는 눈물의 바다 환희의 바다…

이 바다속에 풍덩 빠져들어
끓는 가슴들을 열어젖히려니
다만 목메이는 한마디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말마저 끝맺지 못한채
눈물로 옷깃을 적시는 사람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적시는 저 굵은 눈물
쇠돌처럼 굳센 광부의 심장이
뜨겁게 내어뿜는 사나이눈물
갓 태여나 단잠든 아기의 볼에 떨어지는
젊은 녀인의 저 맑은 눈물…

거대한 우주가 담긴 물방울인양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비쳐안은
불보다 뜨거운 인민의 눈물이여
그 눈물속에 백배로 강해지는
일심의 사회주의성새여

자고 깨면 해일같이 받아안던 사랑에
격정의 눈물 샘처럼 쏟을 때
아이들의 야영길 울고웃으며 바래울 때
우리 정녕 알지 않았던가
작은 한가슴에
그처럼 크나큰 눈물의 바다가 있는줄

진정 사무치게 깨닫지 않았던가
참으로 큰 기쁨은 눈물로 오는것임을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며
따뜻이 비쳐온 운명의 해빛아래
한포기 풀 한그루 나무도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 마음속 신념의 기둥은
아름드리거목마냥 억세여졌어라

큰물보다 더한 난파도 밀려온대도
지구가 열백번 깨여진대도
이제 더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는데야
천만자식 보살피는 은혜로운 품이 있는데야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이 거세찬 민심의 대하
북변의 천리산야에서
내 나라 한끝까지 용용히 흐르거니

오, 인민의 뜨거운 눈물의 바다
끓어번지는 감격의 바다우에
찬연히 솟아 빛나는
영원한 우리 운명의 태양 우러러
이 나라 인민들 심장의 한목소리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노라
—사회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원수님 만세!

전화위복의 거리에서

김남호

두만강천리에
꿈같이 솟아오른 선경마을 새 집들…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인가
숭엄한 전승의 화폭인가
전화위복의 새 거리를 끝없이 거닐며
높뛰는 가슴 진정할길 없구나

완공을 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장을 뒤에 두고
강행군의 불꽃 튕기며 달려온 병사들
려명거리 마지막창문을 달고
당중앙 우러러 승리의 보고 드리고싶었던
그 피끓는 심장들이 일떠세운
두만강기슭의 이 황홀경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들려오는듯 싶다
기적의 나래펴며
단숨에 70층을 타고앉던 려명거리병사들이
천리북변을 진감시키던 격전의 함성
시간은 흘러도 낮과 밤이 따로 없던
가렬한 백열전
육박의 초침소리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며
평양하늘 붉들이던 용접의 불보라
천리산야에 화광으로 충천하고
려명전역에 차넘치던 결사관철의 기상
북부전선에 폭풍으로 나래쳐
락원의 새 거리는 솟구쳤구나

세멘트와 모래만으론
세울수 없는 이 거리
인민사수, 인민복무의 전장에
한목숨 웃으며 내댄 열혈의 그 심장들이
기초가 되고
층막이 되어
북변천리에 쌓아올린 사회주의성새여

안을수록 눈부시구나
눈물겹도록 아름답구나
문명의 채광을 한껏 뿌리는 창가들
배움의 글소리 랑랑한 궁전같은 학교들…
당중앙처마아래 만복의 추녀를 이어
인민의 기쁨이 하늘땅에 넘치는 새 거리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몇천배 더 귀중하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
열화의 그 사랑이
장장 천리에 층층 벽체로 솟고
만년대들보로 얹힌 행복의 거리여

가렬한 전쟁 60여일이 받들어올린
아름다운 선경거리 선경마을들…
나는 여기서 온 세상에 웨치고싶다
예가 바로
우리 원수님 인민위한 사랑으로
내 조국땅 한끝까지 넓혀주신
아, 만복의 려명거리라고

최전연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김춘길

최전연초소의 그리운 오빠
기뻐하세요
별들도 부러워 창가에 내려앉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나는 이 편지를 써요

무서운 물결에 휘말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도 다 잃고
백리도 더 먼 낯설은 산골
외할머니집에 가서
눈물만 흘리던 나였어요

그리웠어요
생일날 몸에 꼭 맞는 새옷 입혀보며
정답게 바라보던 그 눈빛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워
학교로 바래워주던 다심한 그 손길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이불깃을 적시며 잠 못 들던 밤
꿈에도 몰랐어요
산넘어 령넘어
나를 찾아오는 발자국소리
깊은 밤 할머니집대문 열고 들어설줄을

군당에서 내려온 아저씨
맨발로 달려나온 할머니손 잡아안으며
우리 원수님께서
나를 소년단야영소로 부르신다고
어서 가자 내 이름을 소리쳐부를 때

할머니는 엎어지듯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 하염없이 쏟았어요
하늘땅도 울릴 사랑의 전설이
꿈이 아닌 현실로 내앞에 펼쳐졌어요
그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었어요

솟구치는 눈물과 함께
내 작은 가슴에선 저도 몰래 터졌어요
아, 원수님
우리 아버지!

× ×

사랑하는 오빠! 보시나요
사진속의 희한한 이 집이
병사인 오빠의 이름을 문패에 새긴
우리 집이랍니다
뜨락가 배나무앞에서 활짝 웃는 소녀가
새 집의 꼬마주인 저랍니다

즐거운 야영 마치고 돌아오는 역구내에서
어디선가 나를 찾는 목소리
황별단 장령아저씨였어요
나를 한품에 꼭 안아주며
원수님 주신 집으로 가자고 이끌 때
나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어요

궁전같은 야영소에서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서니
방안마다 가득 쌓인 꽃이불과 새옷
따뜻한 털신이며
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맛있는 사랑과자…

장령아저씨의 팔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밤
아니 글쎄 꿈속에서 뵈웠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새 집 구경을 왔다 하시며
두팔벌려 나를 안아주시겠지요

원수님 품에 안겨 꿈속에서 부른 노래
깨여서도 이 기쁨 정말 꿈만 같아
오늘도 부르고 부릅니다
행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
원수님 계시여 영원할 우리 집의 노래
아, 세상에 부럼없어라!

일곱집 일곱식솔

최광일

무산땅에 희한한 새집들이 경사났네
호동마다 현관마다 웃음 절반 눈물 절반…
끝없이 넘쳐나는 행복의 이야기
그중에도 만가슴을 울리는것은
성철령감 끝없이 하는 《칠복》이야기

아직도 생생하오
몸서리치는 검푸른 물갈기
처음엔 맏이네 집 무섭게 덮치더니
그다음엔 첫 살림 편 막내딸네 집…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듯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소

어쩌면 하늘이 그리도 무심하오
제 집 하나 잃은것만도 눈앞이 캄캄한데
세간난 아들딸
일곱집 일가식솔 한지에 나앉았으니
남보다 구들농사 많이 한탓이라고
령감로친 한숨만 꺼지게 쉬었다오

그런데 오늘은 화가 복이 되었구려
이것 보소 일곱집 새 입사증을
맏이네 집 셋째네 집
둘째딸집 막내딸집…
손으로 꼽자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워
못다 꼽겠소

일곱자식 낳았더니
찾아온 복도 《칠복》이구려
하루길에 일곱집구경 어림없지만
오늘 밤엔 기어이 눈덮인 령넘어
새골에 사는 넷째네 새 집까지 다녀올셈이요

온 마음이 궁궐같은 집을 받아안고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 눈물짓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일곱집 받아안았으니
한지에 나앉았던 수재민이
제일 행복한 《만복민》이 되었다오

원수님 이끄시는 로동당세월이 아니라면
하늘아래 이런 일 어찌 있겠소
늙어만 나는 성철령감 속궁냥
한개 소대 넉넉한 손주녀석들 군대에 보내야지
아무렴 우리 큰집을 지켜야지
고마운 이 제도를 목숨바쳐 지켜야지

하하하 호호호…
밤은 깊어 하현달도 기울었는데
령감님 자랑 지샐줄 모르네
사회주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일곱집 일곱식솔 《칠복》이야기
북변땅에 꽃펴나는 만복이야기

사랑하는 병사들아

리혜숙

입사증을 눈물로 적시며 들어선 집
꿈같이 잡아보는 문손잡이에도
기울인 정 그대로 남아
병사들아
그대들의 손길을 잡는것만 같구나

아래목을 따뜻이 덥혀놓고
간밤 소문도 없이
눈덮인 령을 넘어 떠나간 병사들아
곰살고운 벽지며
알뜰한 부엌의 정갈한 타일도
그대들을 생각하며 쓸어보는 이 마음

어이 잊을수 있으랴
폭풍강행군으로 북부전선을 타고앉던 그날
천막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돌격전의 참호를 파듯
살림집의 기초를 먼저 파던 그대들을

한밤을 밝히던 우등불자리에
지금은 유치원 꽃울타리가 서고
입술이 부르트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달리던 그 자욱자욱우에
등교길 마을길이 곧게 열리였거니

그대들은 떠나가도
그 정은 남아있어라
처마에 닿도록 쌓아놓은 장작더미며
토방에 세워놓은 눈가래
뜨락에 심어놓은 과일나무들에

아침마다 들려오던 구령소리 나팔소리
마을마다 울려퍼지던 병사들의 대렬합창이
새집들이환호로 이어진 이 땅
새 거리 새 마을의 부름조차
《철평거리》, 《오싱산아빠트》, 《대덕산마을》이라
생각깊이 부르는 북변땅

두만강 푸른 물결 굽이치는
내 나라의 북방에
인민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전승기념비처럼 세운
원수님의 병사들이여

승리한 고지우에 휘날리는 기발의 펄럭임처럼
온 세상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와 함께
아, 그대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으리
목메여 불러 찾는 사랑하는 병사들아!

승리한 북부전선에 눈이 내린다

전승일

눈이 내린다
기적의 땅 북부전선
아름답게 일떠선
선경거리 선경마을에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 하얀 눈송이

북변에 이맘때면
어김없이 내리던 눈이라지만
격전의 낮과 밤이 떠올린 만복의 거리에
너는 뿌려지는 꽃보라
너는 흩날리는 봄의 꽃잎

따스하구나
포근하구나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온다지만
차디찬 겨울에 앞서 펼쳐진
새집들이 봄맞이
환희의 이 봄세계

행복의 봄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북변의 아들딸들생각으로 꺼질줄 모르던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
사랑으로 불타는 어머니 그 마음을 안고
심장을 울리던 충정의 낮과 밤

눈오는 계절이야 어찌 멈춰세우리만
북방에 내리는 첫눈을
새집들이경사의 꽃보라로 날리게 한
어머니당의 드팀없는 그 의지가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왔거니

내리여 쌓이는 하얀 숫눈우엔
봄꽃마냥 피여나누나
명절처럼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 집을 돌고나는 인민의 기쁨
그 웃음 고이 비껴 정다운 흰눈아
그 기쁨 한껏 어려 유정한 복눈아

정녕 이 땅이 아니라면
우리 당 그 품이 아니라면
한지에 나앉은 이 몸을
순간에 얼궈버릴 차디찬 눈이건만
이 세상 어디 가도 맞을수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따뜻한 눈송이

눈이 내린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인민의 머리우에
끝없이 뿌려지는 축복의 천만꽃송이
사회주의 내 나라
김정은원수님 나라의 무궁번영을
끝없이 속삭이며
아, 승리한 북부전선에 축복의 흰눈이 내린다!

체신발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보여준 발표회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신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포부와 배심을 가지고 나라의 체신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황해북도체신관리국에서는 체신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체신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체신은 오늘 첨단돌파전의 거세찬 불길속에 현대화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는 굳건히 다져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체신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체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지휘를 신속정확히 보장하며 인민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출판선전과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보다 앞세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체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체신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토론과 교류의 마당을 통하여 나라의 체신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첨단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해마다 년례적으로 진행하여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왔다.

이번에 진행된 발표회에는 각 도체신관리국, 체신성산하 공장, 기업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나라의 체신과학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30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제출되였다.

발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체신성 책임부원 문장수동무는 해마다 진행해오는 발표회이지만 이번처럼 단위들사이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가 체신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체신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자강력의 창조물들입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새것을 끊임없이 개발창조하려는 체신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피타는 노력과 열의가 전시된 제품들마다에 력력히 어리여있어 발표회장은 가는 곳마다 국산화의 열기로 들끓었다.

무선방송기종합측정 및 원격관리체계, 통신망순회기록장치, 전송망원격조종 및 감시체계, 광축계블럭지기, 평균번조률현시프로그람, 쏘프트교환기련락선부하량감시체계…

이뿐이 아니다.

만들기 쉽고 동작원리가 간단하면서도 효률높은 망체블검사기를 제작하여 심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량강도체신관리국의 성과도 좋았지만 북부피해복구전투를 벌리는 긴장한 속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현장조건에 적합한 우리 식의 종합망관리체계를 구축할수 있게 되였다는 함경북도체신관리국 일군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가.

발표회장에 전시된 하나하나의 도안들과 제품들, 다매체편집물들을 통하여서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체신부문에서 일어번지는 국산화의 세찬 열풍을 느낄수 있었고 눈부신 질적비약을 이룩한 우리 체신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볼수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체신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어느 도가 앞장서 나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자기 단위의 성과들을 하나라도 더 전시하겠다고 남다른 욕심을 부렸다는 평안남도체신관리국 일군에 대한 이야기며 도안의 모든 체신부문 일군들이 발표회장을 돌아보면서 앞선 단위들의 기술과 경험을 많이 배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일으키도록 방울 세워가며 참관일정을 면밀히 세웠다는 황해북도체신관리국 국장 량일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빛내이려는 체신부문 일군들의 귀중한 애국의 마음과 함께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엿볼수 있었다.

발표회기간에 특색있게 진행된 과학기술추세강의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정보통신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 박사들이 출연하여 체신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체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알아야 할 세계적인 정보통신의 발전방향과 현장들에서 리용하는 정보통신설비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준 과학기술추세강의는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무선국부망구축과 무선정보망구성에 대한 강의를 받고 나온 량강도체신관리국의 한 일군은 강의에 참가하여보니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기되었던 문제해결방도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개 도의 체신부문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틀어쥐고 체신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다음번 발표회에서는 꼭 우승의 영예를 떨치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량강도체신관리국의 일군만이 아닌 모든 도체신관리국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리라.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체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제품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때 나라의 체신은 빠른 기간에 첨단수준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은 하루빨리 일떠서게 될것이다.

박 현

과학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서로의 지혜를 합쳐 풀어나간다.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독자의 편지

이런 녀성을 자랑합니다

우리 대동맹학교는 나라에서 앞 못 보는 아이들을 위해 세운 학교입니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 자그마한 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사람들속에는 대외경제성 아래단위 박영실동무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은것은 몇해전 봄날이였습니다. 그날 학교를 찾아온 그는 장애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도 학교사업에 두팔걷고나섬으로써 나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싶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난 수년간 그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었으며 학생들이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가정에서 애용하던 악기와 함께 많은 량의 물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어느날 이른아침에는 생일을 맞는 한 학생을 위해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건설장에서 곧바로 학교를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에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는 박영실동무의 모습에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감동깊이 읽고있으며 교육사업에 더욱 헌신할 결의들을 굳게 다지군 합니다.

대동맹학교 교장 박홍실

까타르에 갔던 보건성대표단 귀국

강하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대표단이 까타르의 도하에서 진행된 세계적인 보건혁신을 위한 회의에 참가하고 4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초불은 홰불로 타오른다,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이란 없다, 민심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국민이 해체하자

남조선 전지역에서 6차 범국민행동 일제히 전개, 사상 최대규모인 232만명의 각계층 군중 투쟁에 참가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된바와 같이 민심의 완전한 버림을 받은 청와대 악녀를 기어이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6차 범국민행동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3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였다.

사상 류례없는 부정부패악행에 대한 비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대국민사과》만 거듭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박근혜역도년의 뻔뻔스러운 처사에 격분해난 232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범국민행동의 시작에 앞서 사전집회들이 있었다.

비상국민행동과 진보련대는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사앞에서 《박근혜퇴진! 새누리당해체! 국정롱락공범 새누리당규탄 시민집회》를 가지였다.

특대형부정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 박근혜의 권력연장음모를 음으로양으로 뒤받침하는 《새누리당》의 교활한 술책에 항거하는 2만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집회장에 모여들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새누리당》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안되고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민중의 편에 서는듯이 행동하던 의원들이 본격적인 탄핵국면에 들어서자 저들의 리기적리산만 앞세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들까지 서울에 모여와 박근혜퇴진과 《새누리당》해체를 요구하고있는 때에 박근혜의 즉시퇴진에 대답하지 않는 여당을 민중이 나서서 해체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기발을 찢어버리며 탄핵을 반대하는 괴뢰국회의원들을 성토하였다.

한편 박근혜하야청소년공동행동은 보신각앞에서 청소년시국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끝내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학생들을 우롱했다고 단죄하였다.

여기에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것이 기폭제가 되여 민중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장애인차별철폐련대는 광화문역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가 장애자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정》을 롱락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퇴진이 곧 장애자복지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은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 박근혜! 모이자 비정규직》문화집회를 가지고 박근혜가 5%도 안되는 지지률로 자리를 버티고있다고 하면서 그가 당장 자리를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예술대학생시국회의가 력사박물관앞에서, 중고생련대가 종구에서 각각 집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서울의 도처에서 박근혜퇴진을 위한 집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였다.

집회들을 마친 후 수십만명의 군중이 《박근혜 퇴진》의 함성을 터치며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동쪽과 서쪽, 남쪽에서 청와대를 에워싸기 위한 1차 대행진을 하였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라고 웨치며 청와대 포위행동에 돌입한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선두로 시위자들은 전례없이 청와대앞 100m까지 접근하였다.

시위도중 수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오는 계속 늘어나 청와대앞에서부터 광화문을 지나 서울시청앞까지 인파로 가득찼다.

청와대를 마주한 시위자들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해 싸운지 몇해가 지나서야 겨우 100m앞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이렇게 멀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위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청와대는 닭그네의 수족노릇 그만하라》, 《청와대비서진 총사퇴》, 《닭그네의 순장조-청와대졸개들》, 《청와대는 박근혜부역자, 공범자집단》, 《범죄의 소굴 청와대를 해체하라》 등 분노의 함성이 군중속에서 터져나왔다.

이어 시위군중은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박근혜퇴진문제를 놓고 진행한 국민투표결과 99%가 즉시퇴진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집회과정에 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침몰초기 박근혜의 7시간행적을 밝힐데 대한 민중의 요구를 담아 1분간 불을 끌것을 제안하였으며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은 물론 전체 시민이 합세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회합하여 초불을 끄고 어둠속에서 《박근혜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웨쳤다.

초불을 다시 켜들고 참가자들은 청와대방향으로의 2차 대행진을 진행하였다.

파쑈경찰이 258개 중대 2만여명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곳곳에 삼엄한 폭압망을 펼쳤다.

시위자들은 여러 통로로 나누어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행진하여 청와대를 또다시 에워싸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과정에 《세월》호의 참극이 빚어진 날을 되새기며 민중의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을 피해자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의지를 담은 416개의 홰불이 세차게 타올라 참가자들의 격앙된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투쟁대렬에 합세하여 군중은 삽시에 17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날의 범국민행동은 남조선 수십개 지역들에서도 전개되였다.

부산에서는 부정추문사건이 터진후 최대규모로 되는 20만여명의 시민들이 해운대의 철앞 중앙도로를 비롯한 여러 도로들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민심은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바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이라는 가증스러운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갈가리 찢어버리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광주에서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15만여명의 참가하에 시국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격분한 초불민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채 버티기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초불행진을 단행하였다.

대전에서 6만명의 시민들이 시국집회를 가질 때 대구에서는 5만여명이 참가하는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박근혜가 민중과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일본과 한 약속은 그렇게도 잘 지키는가고 단죄하며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웨쳤다.

제주도에서도 1만여명의 초불집회가 있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그동안 민중이 《대통령》퇴진을 요구하였지만 박근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회에 탄핵을 떠넘기며 꼼수를 쓰고있다, 지금부터 목소리를 총동원하여 박근혜탄핵과 퇴진을 위해 싸울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박대통령 즉각 퇴진》구호를 웨치며 도도히 거리행진을 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춘천에서는 7 000여명이 시국집회를 가지고 박근혜퇴진의 함성을 터쳤다.

이곳에서는 또한 전국농민회총련맹 강원도련맹이 투쟁단 2차상경 강원지역출정식을 가지고 트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몰고 시위행진을 벌리며 박근혜퇴진과 초불시위를 모독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초불투쟁은 경상남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도 전개되였다.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에서 시국집회를 가진 뒤 《새누리당》 경남도당사앞까지 시위행진을 한데 이어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당사에 《박근혜-최순실 공범의 당 경남소굴》이라는 현판을 붙여놓았다.

김해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초불을 들고 《대통령》은 최순실의 말통을 치우는 사람이다, 실제로 정책을 구상한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죄하였으며 거제에서는 거제시국협의회가 초불집회를 가지고 《대통령》이 한 아낙네에게 지배당하였다, 닭의 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야 앞으로 우리가 편할수 있다고 웨쳤다.

이밖에 세종과 울산, 경기도 룡인과 충청남도 서산 그리고 전라남도 17개 시, 군 등지에서도 초불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졌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전개된 범국민행동을 두고 청와대는 박근혜가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초불민심이 다소 누그러질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의 집회참가자수만 놓고볼 때 11월 26일의 초불수를 넘어서며 초불민심이 오히려 확대되여 긴장감을 감출수 없었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날의 투쟁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더 크게 타오른 초불》, 《청와대앞까지 울려퍼진 232만 초불함성 … 박대통령 수습책 고심》, 《〈국회는 그만하라〉 … 한층 엄해진 시민들》, 《초불에서 홰불로》 등의 제목으로 《초불이 홰불로 번져졌다.》, 《대국민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민심수습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하였다.

박근혜패당의 가소로운 《독자제재》놀음은 저들의 비참한 종말을 재촉할뿐이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천하를 진감시킨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장쾌한 뢰성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미국을 괴수로 한 불순적대세력들에게는 최후멸망의 무서운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고있다.

이 세상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선군의 핵폭풍에 얼혼이 나간 죄악의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가증스러운것이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상전에 무작정 편승하여 《독자제재》를 부르짖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이다.

유엔에서 《제재결의》라는것이 채택되자 기다린듯이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기자회견이라는것을 소집해놓고 《환영》이니, 《리정표적인 조치》니 뭐니 하며 추태를 부리던 괴뢰들은 《제재결의》리행을 앞장에서 견인하겠다고 흰소리치면서 《독자제재안》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괴뢰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기관들과 핵심일군들을 감히 제재대상에 추가한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처지와 능력으로는 할수도 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독자제재안》에 박아넣었다.

박근혜패당의 《독자제재》발표놀음은 주막집 회청간의 멸기실기 먼지오른 거미줄을 가지고 창공을 나는 매를 어째보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그 어떤 인적, 물적래왕도 전면 차단된 상태에 있다.

굳이 북과 남사이에 오가는것이 있다면 공기마저 얼어붙은 군사분계선철조망우로 날아에는 철새들뿐이다.

이러한 북남관계의 현 상황에서 아무러한 실효도 거둘수 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독자제재》를 떠드는 괴뢰들의 수태야말로 절간의 돌부처도 앙천대소할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실질적으로 이번 《독자제재안》이라는것을 조작하느라 괄을 색임대로 색인 괴뢰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를 비롯한 모략기관의 얼간이들조차 《이미 할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 《아무리 짜내보아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란식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언론들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손바닥으로 공기를 붙잡는 격》, 《마른 수건을 짜는 수준》이라고 혹평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떠드는 《독자제재》라는것은 사실상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제손으로 조이는 우둔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것도 남측기업들이며 한강토를 불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하늘길, 배길, 땅길이 모두 막힌 인위적인 《섬》에서 시시각각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있는것도 바로 괴뢰들이다.

박근혜패당은 우리가 이미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볼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한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뒤간의 휴지장보다 못한것을 내흔들며 제재나발을 불어대는 박근혜와 그 패당의 추악한 꼬락서니는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초불바다에 의해 분분초초 최후의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가련한 처지에서도 북남관계에 대못을 박고 우리에게 앙갚음을 해보려는 대결광들의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괴뢰들이 쓸데없는 허비다놀음에 불과한 《독자제재》따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을것이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고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마음먹은대로 정복해나가는 우주강국의 자랑찬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며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으로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독자제재》든, 집단제재든, 추가제재든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가차없이 짓부셔버리며 승리의 진로를 따라 도도히 질풍노도쳐 나갈것이다.

흐르는 시간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소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얼마나 분발시키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사변들을 안아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괴뢰들이 동족대결에 피를 물고 발악할수록 그것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뿐이다.

며칠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타격에 아우성칠 놈, 비명지를 놈도 없이 순간에 송장더미가 될 박근혜패당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해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르고있는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리병호, 윤병세, 홍용표를 비롯한 악질대결광신자들과 청와대, 《새누리당》, 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등 괴뢰통치기관들을 제재정도가 아니라 민족반역의 무리, 매국배족집단으로 씨도 없이 청산해버릴것이다.

박근혜와 그 패당은 실올꿏은 앙탈질, 헛된 망동에 불과한 제재놀음이 역적무리들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체105(2016)년 12월 4일

평 양

분노한 남조선주민 박정희족속이 살던 집을 방화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40대주민이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그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박근혜역도에 대한 분노심을 안고 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족속이 살던 집을 불태워버렸다.

화재로 1개의 단층건물내부가 모두 불에 타고 옆에 있는 건물의 지붕도 일부 불에 탔다.

그는 방화현장에 《박근혜는 자결하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박근혜가 퇴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든지 해야겠는데 둘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고있기때문에 격분하여 불을 질렀다고 당당히 말하였다. 그는 2012년 12월 12일에도 대구시에 있는 로태우역적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현장에 역적을 군사정변을 일으킨 패당으로 락인하고 역적이 온갖 부정축재를 일삼은데 대하여 단죄하면서 《대통령》직을 리용하여 민중의 재산을 훔치는 도적들이 태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었다.

이것은 민심을 등진 매국노들을 반드시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마약을 끌어들여 사용한 사실 폭로

남조선의 《련합뉴스》가 박근혜집권시기 괴뢰청와대가 마약을 끌어들여 사용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30일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3년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 1 000여알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끌어들인 마약은 지금까지 80%이상 소비되였다고 한다.

청와대가 끌어들인 마약들은 환각증세 등 심한 중독증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이 금지된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박근혜와 청와대가 마약들을 다량구매하고 소비한 리유가 무엇인가를 민중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재앙, 력사의 오물 박근혜년은 즉각 퇴진하라!》

재일동포청년항의단 일본에서 방송차항의시위 전개

【도꾜 12월 3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매국역적 박근혜년을 단죄규탄하며 기어코 죽탕쳐버리기 위한 재일동포청년항의단이 일본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앞과 괴뢰령사부가 들어가있는 《민단》중앙본부에 대한 방송차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1일 《박근혜 즉시 퇴진!》, 《박근혜퇴진민중투쟁 지지》라는 구호를 내붙인 방송차를 몰고 《민단》중앙본부앞에 도착한 재일동포청년항의단은 방송으로 박근혜년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죄행을 낱낱이 폭로규탄하고 남녘동포들의 박근혜퇴진투쟁에 대한 열렬한 지지성원을 표명하였다.

《민단》중앙이 박근혜년을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힘, 분노한 민심을 똑똑히 새겨 괴뢰역적의 앞잡이노릇을 해온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악행들을 민족앞에 사죄할것을 요구하면서 항의단은 《민단》동포들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항의단의 맹렬한 방송차선전에 당황망조한 《민단》중앙패거리들이 건물밖으로 뛰쳐나와 소란을 피웠다.

《민단》패거리들의 통보를 받은 일본경찰들이 방송차주위에 모여들어 폭압태세를 취하였다.

경찰의 포위속에서도 방송원은 《민족의 재앙, 력사의 오물 박근혜년은 즉각 퇴진하라!》, 《북남관계를 결딴낸 동족대결광 박근혜년은 당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연방 웨쳤다.

이어 항의단은 방송차를 타고 《민단》중앙본부 주변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방송선전을 진행한 후 다시 《민단》중앙본부앞에 차를 세워놓고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였다. 또한 재일동포청년항의단은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

일본경찰은 항의단의 방송차가 괴뢰대사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동경찰장갑차와 무장경찰을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경비망을 펼쳐 길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항의단은 저지선을 뚫기 위해 괴뢰대사관주변의 여러 도로를 에돌면서 괴뢰대사관의 앞거리까지 접근한 후 차를 세워 방송시위를 진행하였다.

항의단은 전민항쟁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른 남조선인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민심은 기만적인 《대국민담화》로써는 절대 누잦힐수 없다고 단죄하면서 남녘땅을 서슴없이 외세에 팔아넘기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막아나선 민족의 재앙이며 통일의 원쑤인 박근혜패당을 준엄히 규탄하였다.

방송을 통해 항의단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넘긴 박근혜년을 단죄규탄한다!》, 《남녘동포들의 정의로운 박근혜퇴진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등의 구호를 웨치고 또 웨쳤다.

항의단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 단체소속을 불문하고 남조선인민들과 련대하여 역도년을 단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해외동포서명운동에 적극 합세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2일에도 재일동포청년항의단은 일본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과 《민단》중앙본부에 대한 방송차항의시위와 도꾜에서의 방송선전을 진행하였다.

남조선괴뢰대사관과 《민단》중앙본부에 대한 방송차항의시위 및 거리에서의 방송선전은 계속되며 도꾜의 아다찌, 아라까와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에서의 방송차선전활동도 전개되게 된다.

반역《정권》유지음모를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강력한 퇴진요구에도 불구하고 오그랑수를 쓰면서 《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을 중지하며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괴뢰역도는 며칠전 경찰의 고위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변호인을 내세워 검찰조사를 또다시 거부해나섰다. 이어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한 박근혜역도는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토설하고 퇴진을 선언할 대신 《사리사욕을 품지 않았다.》느니,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탓》이니 뭐니 하고 변명을 하는 뻔뻔스러운 망동을 부리였다. 그리고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하면서 《국회》에 공을 넘겨 여야싸움을 격화시키고 탄핵정국을 흐트러놓는 한편 시간을 얻어 보수세력을 다시 집결시킬 흉심을 드러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새누리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박근혜역도를 구원하기 위해 《좌파세력》이니 뭐니 하면서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청와대의 어중이떠중이들도 매일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현 위기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궁궁이판을 벌려놓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정권》유지음모책동은 괴뢰역도의 즉시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고있는것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에 대한 괴뢰역도의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이 아니다. 부패무능과 반역통치로 오늘과 같은 최악의 정치적혼란과 파국상태를 빚어냈으면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 준엄한 심판을 받는것으로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치르라는것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박근혜역도의 부패정치, 반역통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였다.

오늘 남조선에 펼쳐진 비참한 현실은 박근혜역도의 무능과 반인민적악정이 몰아온것이다. 남조선의 진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한 최순실이였고 박근혜는 그가 줄을 당기는대로 손발이 움직인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박근혜《정권》하에서는 《국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의 비밀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최순실은 괴뢰당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장, 차관임명과 《국회의원공천》문제까지 좌우지하였다.

희세의 정치무능아인 박근혜역도는 한갖 보잘것없는 돌팔이무당과 야합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인민혈세를 가로채면서 사회전반을 망쳐놓았다. 최순실과 그 딸년을 비롯한 1%밖에 안되는 특권층, 부유층들이 강권과 전횡,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을 때 99%에 달하는 근로대중은 뛰어오르는 물가와 세금에 짓눌려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포부로 충만되여야 할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전락되고있는것은 부패무능한 박근혜역도에 의해 빚어진 필연적결과이다.

《세월》호대참사로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는 유가족들이 《시체장사군》, 《반동군》으로 모욕당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던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사경에서 헤매이다가 끝내 숨을 거둔것도 청와대악녀의 반역정치가 가져온 비극이다.

과거죄악으로 보나 오늘의 행실로 보나 박근혜역도에게 그 어떤 미련도 기대도 가질것이 없고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반《정부》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날로 고조되고있는 남조선 각계의 반박근혜투쟁은 부패정치,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인민을 기만, 우롱하며 남조선사회전반을 총체적인 파국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버림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부정부패와 파쑈폭압, 동족대결 등 온갖 못된짓만 일삼아온 박근혜역도는 민심의 요구대로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역도의 권력유지음모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박근혜퇴진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는 시위현장들에서는 《더이상 못 참겠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분노에 찬 웨침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송장내를 풍기고있는 청와대마귀할미를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준엄한 징벌을 가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의지의 분출이다.

부패무능하고 파쑈독재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의 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도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다.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거역하는 박근혜역도의 교활한 술책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박근혜역도의 망동을 묵과한다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꿈은 또다시 짓밟히게 될것이며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대로 끝장낼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의 뻔뻔스러운 《대국민담화》발표놀음과 시간끌기, 탄핵정국교란작전을 한목소리로 단죄하면서 반《정부》투쟁의 초불을 더 높이 추켜들고있다.

종처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쫓아내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남조선인민들의 진정한 삶의 길이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초불을 전민항쟁의 홰불로 틀어쥐고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장도높이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시대의 오물이고 력사의 쓰레기인 박근혜역도가 살아숨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권》유지를 노린 괴뢰역도의 음모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심 철 영

사회주의 한전호에서 함께 싸워온 혁명전우

꾸바혁명의 탁월한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서거는 꾸바인민은 물론 반제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워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꾸바의 민족적영웅으로, 꾸바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저명한 반제투사로 높이 존경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오래전부터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혁명적인 동지적관계를 맺으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해주시였다. 그로 하여 조선과 꾸바는 대륙과 대양을 사이에 두고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에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었다.

주체75(1986)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따뜻이 만나주신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반제공동전선에 함께 서있는 친근한 전우로서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여왔다.

두 나라 당과 정부는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왔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투쟁하여왔다.

이 나날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오랜 혁명전우인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여러 훈장들을 수여받았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맺은 동지적관계를 언제나 잊지 않고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변함없는 혁명적원칙과 의리를 지니고 조선의 통일과 정의의 위업에 확고한 지지성원을 보내준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고 영원한 혁명전우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 보고에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하여 천명하고 이 공동주최안이 실현되지 않으면 꾸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시하였다.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화약내가 풍기는 살벌한 곳으로,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정치적혼란상태가 지속되고있는 불안전한 곳으로 소문난 남조선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숭고한 리념으로 하는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서 벌려놓고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을 정당화하는데 악용하려고 하였다.

당시 꾸바당과 정부는 분렬주의세력의 불순한 정치적모략과 책동을 폭로하고 올림픽경기대회의 서울개최를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섰다. 꾸바의 이러한 국제주의적립장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은 영웅적꾸바인민과 같이 용감하고 원칙적이며 의리가 있는 인민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겨왔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미제의 반꾸바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될 때에도 굴함없이 서반구에서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한 불굴의 혁명투사이다. 그는 그 당시 꾸바에서는 혁명도 사회주의도 파괴되지 않을것이며 공산당이 령도적역할을 계속 수행할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자본주의적이고 부르죠아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군 하였다.

그 시련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들과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밑에 두 나라는 사회주의 한전호에 굳게 서있었으며 두 당, 두 정부,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조선꾸바친선과 사회주의위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리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여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적꾸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까스뜨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적꾸바인민과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라 명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도이췰란드, 방글라데슈, 나이제리아, 에짚트, 에티오피아, 메히꼬에서 업적토론회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각하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고 말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압살공세를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그들은 칭송하였다.

도이췰란드 하노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에르그 로렌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그 위력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여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정일각하회고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전 국회 하원의원 바르미나스 일베스는 김정일각하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인간이시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자주와 정의의 화신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장군회고 에짚트 및 아랍위원회 위원장 야호야 자카리야 헤이볼라는 김정일각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그이의 위대성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에티오피아위원회 위원장 너가루 다그나채우 체리네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전당, 전군, 전민을 선대수령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을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녀성운동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세계 진보적인사들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보내여온 축전들에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온 조선녀성운동의 훌륭한 전통과 력사를 찬양하였다.

아르헨띠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인민녀성기구 고문 로르웨 루이스 우베르떨리 욤브렐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손길아래 창립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세계 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전체 녀성들에게 혁명적인사를 보낸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안또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강위력한 조직으로 발전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녀성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너가루 다그나채우 체리네트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녀성운동은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녀성운동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것이다.

세계녀성운동 녀성권리조정협회 파키스탄지부 총서기 니가르 비카르도 조선녀성들은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 번영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고 하였다.

로씨야작가동맹 성원 류드밀라 아브제예바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존엄높은 조선녀성들도 서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는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어머니들과 안해들, 딸들을 비롯한 모든 조선녀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축원한다.

조선의 풍요한 대지에 태양의 빛이 더 밝게 비쳐지기를, 무궁한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을 지지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비망록은 지난 5년간 날로 가증된 오바마행정부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까밝히고 조선의 핵무력강화의 정당성을 론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직후 2012년부터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코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였다.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온갖 도발행위들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선을 질식시키기 위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렸다.

특히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이 모든 범죄적인 전쟁책동에 대한 정정당당한 대응으로서 자기의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핵무기보유와 핵무력강화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의 자위적선택이다.

미국은 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의 핵무력강화를 지지한다.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중지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로 떠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비망록을 발표하여 갖은 수단을 다해 조선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고 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을 반공화국압살정책으로 락인하였다.

비망록에는 지난 5년간 조선을 선제공격하려는 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군사적위협을 고속으로 더욱 증대시켜온 미국의 수많은 침략행위들이 렬거되여있다.

조선외무성은 일방적인 대조선제재를 실시하고있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조선외무성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이 조선의 핵 및 미싸일시험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비망록은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아르구멘띠 이 팍띠》, 《브즈글랴드》, 이란신문 《테이한 인터내슈널》,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영국신문 《텔레그라프》, 스웨리예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회보 《조선반도》, 미국인터네트통신 인터내슈널 비지니스 타임스,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 나이제리아의 AIT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을 보도하였다.

식량생산을 늘일데 대해 강조

인도네시아대통령 조꼬 위도도가 11월 30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식량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가 농촌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추동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관개공사와 저수지공사에 힘을 넣는 한편 식량수입을 줄이고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가물에 철저히 대처할것을 호소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가물에 철저히 대처할것을 호소하였다. 100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혹심한 가물이 나라에 들이닥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번 가물로 식량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태수습을 위해 조직된 전문그루빠들이 주민들 특히 수도시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만단의 전투태세를 견지할것을 주장

이란군 부총사령관이 최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란무장력이 만단의 전투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적들이 이란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무장력의 전투태세에서 중요한 요소인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적들이 감히 침략행위를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군 전과 확대

수리아정부군이 최근 반테로투쟁에서 전과를 올리고있다.

11월 26일 이 나라 군대는 알레뽀시동부에 있는 가장 큰 테로분자들의 관할지역인 마사켄 하나노구역을 점령한데 이어 27일 사쿠르구역과 자발 바드로구역을 탈환하였다.

사쿠르구역이 수리아군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테로분자들의 관할지역은 둘로 갈라지게 되였다.

수리아정부군의 빠른 진격으로 테로분자들은 수세에 빠졌으며 수리아군대와 그와 동맹한 전투원들은 현재 바브티엔구역과 하이다리에호지역의 변두리로 진격하고있다고 한다.

사나통신은 28일 정부군이 알레뽀시에 먹는물을 보장해주는 수원지를 장악하였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격사건으로 10여명의 사상자 발생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뉴 올리언즈시에서 11월 27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말다툼을 벌리던 끝에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날 주의 배턴루지시에서는 48살 난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2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새 국가예산 채택

요르단에서 11월 27일 다음년도 국가예산을 채택하였다.

에네르기, 물, 보건, 교육, 교통운수 등 부문의 발전에 예산의 많은 몫이 돌려지게 된다.

콜레라예방접종사업

아이띠에서 콜레라예방접종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0월초 태풍피해의 후과로 5 800여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왁찐접종깜빠니야를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72만 9 000명이상의 주민이 왁찐을 접종받았다.

11월 28일 세계보건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담배광고금지조치

아제르바이잔국회가 11월 29일 담배광고에 관한 법조항을 수정할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담배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다.

나무심기깜빠니야 시작

르완다에서 최근 나무심기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11월 30일 정부는 이번 깜빠니야기간 황폐화된 지역들에 2 300만그루이상의 나무를 심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까지 나라의 산림덮임률을 30%로 높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꾸바의 니켈광산

오늘의 세계

협조와 단결, 평화를 추동한 대회합

지난 11월 23일 적도기네의 수도 말라보에서 제4차 아프리카-아랍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서 온 66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부대표단들, 아프리카동맹, 아랍국가련맹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기구대표단들, 경제협조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수뇌자회의의 개막연설에서 적도기네대통령은 호상리익과 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두 지역 나라들사이에 남남협조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아랍나라들이 자기의 자금과 기술로 아프리카나라들의 발전에 기여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이색적인 사상문화를 배격하고 현대기술과 문명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교양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한편 모리따니, 챠드대통령들을 비롯한 토론자들도 기술, 에네르기,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와 투자확대를 통하여 두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며 특히 지역들사이의 단합과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해서 피력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013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3차 수뇌자회의에서 결정, 채택된 문제들의 리행정형에 대하여 총화하고 앞으로 아프리카와 아랍나라들이 공동의 도전들을 극복해나가는데서 호상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지배를 반대하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며 팔레스티나의 국가창설과 평화를 요구하는 선언들과 행동계획, 결정서들이 채택되였다.

세계제패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분렬모략책동으로 인하여 세계도처에서 분쟁과 테로가 란무하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진행된 이번 수뇌자회의는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사이의 협조와 단결, 평화를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지역나라들이 세계적인 도전들을 극복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지난날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의 대상, 침략과 전쟁의 희생물로 되여왔다. 많은 나라들이 독립후 새 사회건설에 들어섰으나 자체의 경제토대가 미약한것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지방》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귀중한 자연부원을 략탈당하고 혹심한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에 휘말려들게 되였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내정간섭과 군사적강권을 일삼으면서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롱락하였다.

력사적사실들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며 오직 지역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번영과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기게 하였다. 이로부터 국제무대에서는 지역적협조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아프리카동맹, 아랍국가련맹을 비롯한 지역적 국제기구들이 발족되여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여 오늘날에 와서는 지역간협조로까지 발전하고있다. 특히 력사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있는 아프리카와 아랍나라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조노력이 주목을 끌고있다.

1977년 에짚트의 수도 까히라에서 제1차 아프리카-아랍수뇌자회의를 개최한 지역나라들은 아프리카경제발전을 위한 아랍은행설립과 같은 두 지역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를 위한 여러 기구창설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10년 리비아에서 소집된 제2차 수뇌자회의에서는 서방의 《세계화》책동에 맞서 아프리카-아랍련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3년에 한번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번까지 네번째로 진행되는 아프리카-아랍수뇌자회의는 두 지역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문가들은 자원과 기술, 로동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아랍나라들사이의 협조전망은 매우 밝으며 앞으로 정치, 외교분야에서 아프리카-아랍련합이 보다 공고화된다면 국제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자주와 평화, 번영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더욱 악화되는 뛰르끼예-유럽동맹관계

얼마전 유럽의회가 뛰르끼예의 유럽동맹가입을 위한 협상을 중지할것을 동맹에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의회는 이 문건에서 뛰르끼예의 《인권문제》들을 거들면서 뛰르끼예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동맹과의 협력의지를 보여주지 않고있다, 그것이 이 나라로 하여금 유럽에로의 길에서 더욱더 벗어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결국 뛰르끼예의 《인권》실태가 저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유럽동맹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설수 없다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3월 유럽동맹은 유럽으로 몰려드는 대규모의 피난민행렬을 통제하기 위해 뛰르끼예와 피난민송환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그리스로 건너간 피난민들을 뛰르끼예로 되돌려보내여 유럽 각국에 분할하는 대신 유럽동맹은 뛰르끼예의 유럽동맹가입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유럽동맹이 뛰르끼예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부당하게도 자기의 의무리행을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유럽동맹은 올해 10월부터 뛰르끼예공민들의 유럽동맹나라들에로의 무사증려행을 보장할데 대해서도 약속하였으나 이것 역시 뛰르끼예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강력한 테로방지법을 시행하고있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아직까지 리행하지 않고있다.

상대방을 얼려넘겨 제 리속을 차리고는 지금에 와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는 유럽나라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뛰르끼예가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뛰르끼예대통령은 어느 한 행사장에서 유럽이 뛰르끼예를 계속 압박할 경우 자기 나라는 유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지난해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경유하여 유럽에 온 피난민수는 100여만명에 달하였지만 올해에는 협정에 따르는 뛰르끼예의 노력으로 하여 현재까지 그 수가 33만명에 그쳤다고 한다. 만약 그의 말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면 사상 최대의 피난민위기로 인한 내부분렬로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럽동맹나라들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문제는 이전부터 뛰르끼예가 동맹에 가입하는 경우 더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류입될것이라고 간주하고있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동맹나라들이 유럽은 그 누가 자기를 협박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자기 국경들을 자체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뛰르끼예의 동맹가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립장을 고수하고있는것이다. 이로 하여 지금 뛰르끼예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길목에 자리잡고있는 뛰르끼예는 지난 수십년동안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유럽동맹내의 많은 나라들은 뛰르끼예가 종교와 문화적측면에서 저들과 엄연히 구별되며 특히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유럽동맹에 받아들이는것을 지금까지 거부해왔다.

필요할 때에는 《동반자관계》를 운운하며 손을 내밀었다가도 동맹가입문제만 제기되면 못생긴 새끼오리취급을 하면서 기만하고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유럽나라들의 태도는 뛰르끼예가 유럽동맹에 등을 돌려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이미 뛰르끼예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더이상 유럽동맹가입에 매달리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로씨야가 주도하는 상해협조기구에 가입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과 로씨야에 대하여 항상 위구심을 품고있는 미국과 유럽동맹으로서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의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지만 그때 가서 그들은 그 누구를 탓할수도 없을것이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자기자신들이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삼림다양성파괴문제

세계삼림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있어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 300만 ha의 삼림이 없어지고있는데 이것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파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고있다. 그러나 삼림다양성 파괴도 그에 못지 않은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잡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약 세계삼림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경우 경제적손실액은 한해에 약 5 000억US$에 달하게 된다. 이번에 연구사들은 세계삼림의 생산력이 삼림의 다양성이 풍부해지는데 따라 높아진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만일 현재의 세계삼림이 다양성을 상실하고 단일한 수종의 나무로만 이루어진다면 설사 나무의 수량과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세계삼림의 생산력은 26~66% 떨어지게 된다.

연구사들은 생산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삼림다양성의 가치가 매해 1 600억~4 900억US$에 달한것으로 추산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해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의 2배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삼림다양성을 보호하는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처럼 커다란 경제적의의를 가진다.

지난 반세기동안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세계삼림의 다양성은 류례없이 파괴되였으며 삼림을 이루는 나무종류는 자연적인 사멸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있다. 현재 북유럽의 동부, 씨비리중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삼림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일부 열대 및 아열대삼림들에서 다양성이 급속히 파괴되고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경제적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생물종들은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재생될수 없다. 시급히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앞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삼림다양성의 파괴를 막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공동의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본사기자

ㄱ-61195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